

직무스트레스와 감정표현불능 성향과의 상관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의학교실

유성진 · 김자현 · 장순우 · 전형준 · 김병권 · 박종태

— Abstract —

Association between Job Stress and Alexithymic Traits

Seong Jin Ryu, Ja Hyun Kim, Soon Woo Jang, Hyung Joon Jhun,
Byoung Gwon Kim, Jong Tae Park

Department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Objectives: We evaluated the association between job stress and alexithymic traits in Korean workers.

Methods: Workers (n=521) who visited two university hospitals for medical check-ups were recruited for this study. Job stress was evaluated using the Korean version of Karasek's Job Content Questionnaire (JCQ), and alexithymic traits were assessed using the Korean version of the Toronto Alexithymia Scale (TAS-20K). Crude and adjusted odds ratios (ORs) of job stress scales (job strain, job insecurity, and job dissatisfaction) with alexithymic traits (total TAS score ≥ 52) were calculated.

Results: High job strain compared with low strain had a high, but insignificant association with alexithymic traits (adjusted OR, 2.26; 95% CI, 0.93-5.44). High job insecurity (adjusted OR, 2.26; 95% CI, 1.21-4.22), and high job dissatisfaction (adjusted OR, 1.99; 95% CI, 1.06-3.74) had significant associations with alexithymic traits.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job stress is associated with alexithymic traits in workers.

Key Words: Stress, Alexithymia

서 론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은 개인이 경험한 감정이나 느낌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인지-정동이상(cognitive-affective disturbance)을 나타내는 용어이다¹⁾. 이는 정신신체장애(psychosomatic disorder)환자들을 치료하던 정신과 의사들에 의해 관찰된 것으로 환자들은 느낌을 확인하기 어려워하며, 신체감각과 느낌을 구별하지 못하며, 공상하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고, 상상과정의 제한이 있으며, 인지양식이 외부지향적이다^{2,3)}. 감정표현불능증의 병인에 대한 모형에는 생리학적 측면, 정신

역동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이 있다. 생리학적 측면에서는 감정을 조절하는 우측 뇌반구에 이상이 있거나, 뇌반구 간의 교류의 이상으로 우측 뇌반구에서 감정에 대한 정보가 좌측 뇌반구의 언어를 담당하는 구역으로 적절히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으며^{4,5)}, 발생학적 과정이나 유아기의 발달과정의 문제로 정동을 관여하는 뇌영역과 느낌 및 공상을 관여하는 뇌영역의 연결이 부족하다는 설명이 있다⁶⁾. 정신 역동적 측면에서는 일종의 방어기전이나 방어기전의 실패로 해석되고 있다^{7,8)}.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환자의 사회적 배경과 지적능력이 관련이 있다는 의견^{9,10)}과 함께, 산업사회에 적응하면서 2차적

사회화 과정에 의한 영향¹¹⁾이고, 상징화를 사용하여 의사 소통하는 기술이나 능력을 발달시킬 수 없는 환경에서 성장하여 타인과 정서적으로 교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활한 결과¹²⁾라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초점으로 정신 의학적 문제나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사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시행되어 왔다¹³⁾.

최근에는 감정표현불능증이란 정신신체질환자들만의 특징적인 경향은 아니며 정서조절의 장애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공통적인 소견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감정표현불능증을 보이는 모든 신체적 질환 및 정신과적 질환들을 정서 조절 장애로 분류할 것이 제안되고 있다⁴⁾. Saarijarvi 등(1993)의 연구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이 정신과 외래 자문환자의 약 30~40%에서 나타나며, 일부 정상인에 있어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¹⁵⁾.

국내에서는 Kou 등(1994)¹⁶⁾이 정신신체장애, 불안장애, 우울장애 등의 정신장애와 감정표현불능증의 비교연구를 통해 정신장애와 감정표현불능증이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한글판 20항목 Toronto 감정표현불능증 척도를 이용한 감정표현불능증에 대한 연구로는 알코올리즘, 원형탈모증, 천식, 기능성 소화불량증환자에서의 감정표현불능증에 대한 연구, 그리고 신체형장애 환자와 당뇨병 환자, 궤양성대장염 환자와 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에서의 비교연구 등이 있었다. 일반인구 집단에서 이러한 특정질환들과 감정표현불능증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지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감정표현불능증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¹⁷⁾.

Ham과 Jhun은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감정표현불능 성향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¹⁸⁾. 이들의 연구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대상 근로자의 수가 적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들의 직무스트레스는 Karasek의 직무긴장도 모형(Job strain model)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직무스트레스 설문(Job Content Questionnaire, JCQ)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직무긴장도에 따른 감정표현불능 성향과의 상관성은 평가하지 못하였으며, 개별 직무스트레스 척도와 감정표현불능 성향과의 상관성만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직종의 많은 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행 연구에서 자료 분석시 미비하였던 점들을 보완하여 직무스트레스와 감정표현불능 성향과의 상관성을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서울과 경기도 안산지역의 2개 대학병원에 건강검진을

위해 내원한 근로자 중 521명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감정표현불능 성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과거병력 상 정신질환이 없다고 응답한 근로자들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자가 내원한 근로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작성에 동의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직무스트레스는 한글판 Karasek 직무스트레스 설문(Korean version of the Karasek's Job Content Questionnaire, JCQ)을 이용하였고 감정표현불능 성향에 대한 조사는 한글판 Toronto 감정표현불능증 척도 설문(Korean version of Toronto Alexithymia Scale, TAS-20K)을 사용하였다.

Karasek 직무스트레스 설문¹⁹⁾은 근무 환경의 정신사회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개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직무재량도, 정신적 직무요구, 직업불안정성, 직무불만족도 4가지 항목을 조사에 포함하였다. 한글판 설문지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는 Eum 등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Cronbach's alpha: 직무재량도: 0.74, 정신적 직무요구: 0.63, 직업불안정성: 0.53, 직무불만족도: 0.81)²⁰⁾. Karasek 직무긴장도모형^{21,22)}에 의해 직무긴장도는 정신적 직무요구가 높고 직무재량도가 낮을 경우 직무긴장도가 높은 집단(high job strain)으로, 정신적 직무요구가 낮고 직무재량도가 높을 경우 직무긴장도가 낮은 집단(low job strain)으로, 나머지 집단은 직무긴장도 중간집단(intermediate job strain)으로 정의하였다. 직업불안정성은 불안정성이 높은 집단(high job insecurity)과 낮은 집단(low job insecurity)으로 직무불만족도도 불만족도가 높은 집단(high job dissatisfaction)과 낮은 집단(low job dissatisfaction)으로 분류하였다. 직무긴장도, 직업불안정성과 직무불만족 3가지 척도로 직무스트레스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TAS-20K는 각 문항마다 정도에 따라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아주 그렇다)까지 5점 척도를 표시하고 있으며 총점은 20점에서 100점이다. 한글판 설문지의 정확도와 신뢰도는 한국인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Cronbach's alpha, 0.76)²³⁾. Bagby 등²⁴⁾은 총점이 61점 이상이면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52점에서 60점 사이이면 중간(intermediate), 51점 이하이면 감정표현불능증이 없는(non-alexithymic)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TAS-20K의 총점이 52점 이상인 경우를 감정표현불능 성향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대상자의 연령, 성별, 직업, 결혼상태, 교육, 흡연, 음

주에 대한 정보도 설문조사 시 수집하였다. 이 연구에서 교육수준은 대학교육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하였다. 응답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설문을 받았다.

3. 통계분석

감정표현불능 성향을 보이는 군과 비 감정표현불능증 군과의 일반적 특징은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비교하였다. 개별 JCQ 척도는 각 척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이분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척도(job strain, job insecurity, job dissatisfaction)와 감정표현불능 성향과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보정하지 않은 비차비(crude odds ratios)와 보정비차비(adjusted odds ratios)를 계산하였다.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법을 이용하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보정한 상태에서 직무스트레스의 척도들과 감정표현불능 성향과의 상관성을 조사하였다. 연령, 성별(남/여), 결혼상태(결혼/미혼 등), 교육(대학교육/ 대학교육미만), 흡연(비흡연자/흡연자), 음주(음주/비음주)를 잠재적 혼란요인으로 보정하고 직무긴장도, 직업불안정성, 직무불만족도와 감정표현불능 성향과의 상관성을 조사하였다.

결 과

연구 대상자 중 40대가 223명(42.8%)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136명(26.1%), 20대가 91명(17.5%)의 순으로 많았다. 대상자 중 423명(81.2%)이 남성이었다. 직업은 관리행정직, 기능생산직이 각각 174명(33.4%)이었고 이외에 전문직, 서비스업, 기타(판매, 노무, 운수)로 나타났다. 대상자 중 378명(72.6%)이 기혼자였고 223명(42.8%)이 대학 졸업자였다. 대상자 중 205명(39.4%)이 흡연을 하였으며, 396명(44.7%)이 알코올을 섭취한다고 응답하였다(Table 1).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중 60명(11.5%)이 감정표현불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61명(88.5%)은 감정표현불능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정하지 않은 비차비 계산을 통해서 20대와 비교하여 40대(Crude OR: 0.31, 95% CI: 0.15-0.66)와 50대(0.32, 0.12-0.94)에서 감정표현불능 성향이 유의하게 낮았다. 기혼자에 비해 결혼하지 않은 근로자에서 감정표현불능 성향이 유의하게 높았다(2.24, 1.29-3.90). 성별, 대학교육, 흡연, 음주는 감정표현불능 성향과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직무긴장도가 낮은 집단과 비교하여 중등도인 집단에서 감정표현불능 성향이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1.34, 0.61-2.94). 그러나 직무긴장도가 낮은 집단에 비해 긴장도가 높은 집단의 감정표현불능 성향이 유의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workers

	Frequency
Age	
20-29	91 (17.5)
30-39	136 (26.1)
40-49	223 (42.8)
50-59	71 (13.6)
Gender	
Male	423 (81.2)
Female	98 (18.8)
Job	
Manager	174 (33.4)
Technician or professional	86 (16.5)
Service worker	55 (10.6)
Craft or related trades worker	174 (33.4)
Others (sale, elementary, transport)	32 (6.1)
Marriage	
Yes	378 (72.6)
No	143 (27.4)
College graduation	
Yes	223 (42.8)
No	298 (57.2)
Current smoking	
Yes	205 (39.4)
No	316 (60.6)
Alcohol intake	
Yes	396 (76.0)
No	125 (24.0)

게 높았다(3.05, 1.35-6.87). 직업불안정성이 낮은 집단에 비해 불안정성이 높은 집단의 감정표현불능 성향이 유의하게 높았다(2.98, 1.69-5.27). 직무불만족도가 낮은 집단에 비해 불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감정표현불능 성향이 유의하게 높았다(2.93, 1.69-5.09)(Table 2).

보정한 비차비를 계산하였을 때 이 연구에서 잠재적 혼란변수로 정의한 변수들(연령, 성별, 결혼, 대학교육, 흡연, 음주)과 감정표현불능 성향 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은 없었다. 직무긴장도가 낮은 집단과 비교하여 중등도인 집단(adjusted OR: 1.29, 95% CI, 0.57-2.94)과 높은 집단(2.26, 0.93-5.44)에서 감정표현불능 성향이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직업불안정성이 높은 집단의 감정표현불능 성향이 유의하게 높았고(2.26, 1.21-4.22), 직무불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감정표현불능 성향이 유의하게 높았다(1.99, 1.06-3.74)(Table 3).

고 찰

Kojima 등²⁵⁾에 의한 연구에서는 연령이 많고 교육수준이 낮을 경우, Salminen 등²⁶⁾의 연구에서는 여성보다 남

Table 2. Crude odds ratios of covariates and job stress scales with alexithymic traits

	Alexithymic traits* (n=60)	Non alexithymics† (n=461)	Crude odds ratio	95% CI
Age				
20-29	17 (18.7)	74 (81.3)	1.00	
30-39	23 (16.9)	113 (83.1)	0.89	(0.44-1.77)
40-49	15 (6.7)	208 (93.3)	0.31	(0.15-0.66)
50-59	5 (7.0)	66 (93.0)	0.32	(0.12-0.94)
Gender				
Male	50 (11.8)	373 (88.2)	1.00	
Female	10 (10.2)	88 (89.8)	1.18	(0.58-2.42)
Marriage				
Yes	26 (18.2)	117 (81.8)	1.00	
No	34 (9.0)	344 (91.0)	2.24	(1.29-3.90)
College graduation				
Yes	32 (14.4)	191 (85.6)	1.00	
No	28 (9.4)	270 (90.6)	0.62	(0.36-1.06)
Current smoking				
No	33 (10.4)	283 (89.6)	1.00	
Yes	27 (13.2)	178 (86.8)	1.30	(0.76-2.24)
Alcohol intake				
No	14 (11.2)	111 (88.8)	1.00	
Yes	46 (11.6)	350 (88.3)	1.04	(0.55-1.97)
Job strain				
Low	9 (7.4)	112 (92.6)	1.00	
Intermediate	27 (9.7)	251 (90.3)	1.34	(0.61-2.94)
High	24 (19.7)	98 (80.3)	3.05	(1.35-6.87)
Job insecurity				
Low	20 (6.8)	276 (93.2)	1.00	
High	40 (17.8)	185 (82.2)	2.98	(1.69-5.27)
Job dissatisfaction				
Low	24 (7.3)	305 (92.7)	1.00	
High	36 (18.8)	156 (81.2)	2.93	(1.69-5.09)

*: Alexithymic traits: Toronto Alexithymia Scale (TAS) score \geq 52.

†: Non-alexithymics: TAS score < 52.

성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감정표현불능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ryden과 Ley 등²⁷⁾은 정서의 처리과정이 뇌반구의 역할과 관련 있다고 생각해서 남자에서 감정표현불능증 수준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자들 중에도 뇌반구 전문화가 미흡한 사람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²⁸⁾.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여자들이 감정문제에 대하여 남자보다 더 많은 대화를 한다는 것을 발견한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²⁹⁾. 본 연구결과에서는 단변량 분석시 미혼자에서 감정표현불능 성향이 크게 나타나고 연령이 많을수록 감정표현불능 성향이 적게 나타났다. 하지만 다변량 분석에서 연령, 성별, 결혼, 대학교육, 흡연, 음주와 감정표현불능 성향과의 유의한 상관성은 없었다.

이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와 감정표현불능 성향이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재량도는 직무내용의 범위, 자극의 변화정도, 창의력 또는 문제 해결능력을 사용할 여지, 업무수행속도나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근로자의 직접적인 통제기회 등을 나타내고 직무요구는 노동량과 노동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직무긴장도가 높을 경우 주요한 스트레스의 원인이며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³⁰⁾. 이 연구에서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직무긴장도가 높아질수록 감정표현불능 성향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무긴장도에 따른 건강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에 비추어 직무긴장도와 감정표현불능 성향사이에 상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직업불안정성은

Table 3. Adjusted odds ratios of covariates and job stress scales with alexithymic traits

	Adjusted OR	95% CI
Age		
20-29	1.00	
30-39	1.29	(0.52-3.17)
40-49	0.53	(0.18-1.58)
50-59	0.67	(0.18-2.50)
Gender		
Male	1.00	
Female	1.69	(0.69-4.17)
Marriage		
Yes	1.00	
No	1.45	(0.63-3.35)
College graduation		
No	1.00	
Yes	1.69	(0.94-3.04)
Current smoking		
No	1.00	
Yes	1.15	(0.60-2.20)
Alcohol intake		
No	1.00	
Yes	0.78	(0.38-1.60)
Job strain		
Low	1.00	
Intermediate	1.29	(0.57-2.94)
High	2.26	(0.93-5.44)
Job insecurity		
Low	1.00	
High	2.26	(1.21-4.22)
Job dissatisfaction		
Low	1.00	
High	1.99	(1.06-3.74)

Covariates: age, gender (male/ female), marriage (yes/ no), college graduation (yes/ no), smoking (non-smoker/ current smoker) and alcohol intake (yes/ no)+job strain+job insecurity+job dissatisfaction

자신의 직업 또는 직무에 대한 안정성의 정도로 구직기회, 고용불안정성 등을 나타내고 직무불만족도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선호도를 의미한다. 직업불안정성은 심리적 안녕을 저해하며 불안정한 기간이 길어질 경우 만성적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직무만족도를 떨어뜨린다³¹⁾. Maslach 등³²⁾은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화되고 만성화될 때 부적응현상이나 신경쇠약과 같은 정신병리학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으며, 우울장애, 불안장애, 신체화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다양한 정신 병리학적 현상은 또한 감정표현불능증과 관련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스트레스와 감정표현불능증간의 상관성을 설명하는 기전으로, 감정표현

불능증이 있는 사람에서 스트레스에 반응하기 위한 신경내분비계의 반응력이 떨어져 있고 만성적으로 교감신경과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 (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xis)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스트레스 관련 질환이 잘 생긴다는 가설이 있다³³⁾. De vante 등¹⁷⁾의 연구에서는 근로자들에서 직무 관련 스트레스가 감소할 때 감정표현불능 성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스트레스와 감정표현불능증간에 관련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aylor 등³⁴⁾에 의하면 감정표현불능증은 일차성(원발성)과 이차성(속발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차성 감정표현불능증은 확정된 인격성향으로 인식되고 이차성 감정표현불능증은 외상이나 의학적 정신적 질병과 같이 위협적이거나 고통적인,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대한 방어적 성향이나 방어실패에 의한 성향으로 보여 진다¹⁷⁾. 본 연구에서 조사한 감정표현불능 성향은 이차성 감정표현불능증의 발생 기전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단면연구로 직무스트레스와 감정표현불능 성향이 동시에 측정되었기 때문에 양자의 인과관계 즉 시간적 선후관계를 밝히지는 못하였다. 둘째, 직무스트레스 설문 문항 중 사회적지지가 감정표현불능증과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³⁵⁾. 그러나 저자들이 본 설문을 하기 전에 시행한 예비조사에서 일부 회사의 관리자들이 설문에 사회적지지(특히 상사에 의한 사회적 지지) 문항이 포함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아 이 연구에서는 이 문항은 설문에서 제외되었다. 셋째, 감정표현불능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했을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TAS-20 원저자는 임상적 관찰이나 대상자를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의 보고와 같은 추가적 정보를 같이 평가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시행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³⁴⁾.

기존연구에서는 감정표현불능증을 TAS 점수 61이상으로 정의했지만 본 연구에는 TAS 점수 61점 이상 2.1%로 나타나 TAS 점수 52점 이상으로 감정표현불능 성향을 측정하였다. Fukunishi 등³⁶⁾, Salminen 등²⁶⁾, Kokkonen 등³⁷⁾의 연구들에서 일반인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이 10% 내외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처럼 근로자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이 적게 나타난 것은 '건강 노동자 효과'에 의해 감정표현불능 성향이 있는 근로자가 직장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직장을 옮기거나 직장에서 탈락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국내에서 직무스트레스와 감정표현불능증과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사무직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이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다른 직종을 포함한 대상으로 확장시킨

연구라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추후 대규모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연구를 통해 직무스트레스와 감정표현불능증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요 약

목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감정표현불능 성향과의 상관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방법: 서울과 경기도 안산지역의 2개 대학병원에 건강 검진을 위해 내원한 근로자중 생산직 근로자5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글판 Karasek 직무스트레스 설문(Korean version of the Karasek's Job Content Questionnaire, JCQ)을 통해 직무스트레스를 평가하고 한글판 토론토 감정표현불능증 척도 설문(Korean version of Toronto Alexithymia Scale, TAS-20K)으로 감정표현불능 성향을 조사하였다. 개별 JCQ 척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이분하였고 직무긴장도(Karasek 직무긴장모델에 의해 정신적 직무요구와 직무재량도로 직무긴장도 평가: 높음/중간/낮음), 직업불안정성(높음/낮음), 직무불만족도(높음/낮음) 3가지 척도로 직무스트레스를 평가하였다. JCQ 척도와 감정표현불능 성향(total TAS score ≥ 52)과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보정하지 않은 비차비(crude odds ratios)와 보정비차비(adjusted odds ratios)를 계산하였다.

결과: 보정하지 않은 비차비 계산시, 직무긴장도가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crude OR: 3.05, 95% CI, 1.35-6.87)에서, 직업불안정성이 높은 집단(2.98, 1.69-5.27)에서, 직무불만족도가 높은 집단(2.93, 1.69-5.09)에서 감정표현불능 성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다중로지스틱회귀모형에 의한 보정비차비 계산시, 직무긴장도가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adjusted OR: 2.26, 95% CI, 0.93-5.44)에서 감정표현불능 성향이 크게 나타났으나 유의하지는 않았고, 직업불안정성이 높은 집단(2.26, 1.21-4.22)에서, 직무불만족도가 높은 집단(1.99, 1.06-3.74)에서 감정표현불능 성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결론: 직무스트레스와 감정표현불능 성향 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 1) Sifnoes PE. Short-term psychotherapy and emotional crisis.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72. cited from Taylor GJ. Alexithymia: concept, measurement, and implications for treatment. Am J Psychiatry 1984;141:

- 725-32.
- 2) Lane RD, Schwarz GE. Levels of emotional awareness: a cognitive-develop mental theory and its application to psychopathology. Am J Psychiatry 1987;144:133-43.
- 3) Taylor GJ. Psychoanalysis and psychosomatics: a new synthesis. J Am Acad Psychoanal 1992;20:251-75.
- 4) Jessimer M, Markham R. Alexithymia: a right hemisphere dysfunction specific to recognition of certain facial expressions? Brain Cogn 1997;34(2):246-58.
- 5) Hoppe KD, Bogen JE. Alexithymia in twelve commissurotomized patients. Psychother Psychosom 1977;28: 148-55.
- 6) Nemiah JC. Denial revisited: reflections on psychosomatic theory. Psychother Psychosom 1975;26:140-7.
- 7) Nemiah JC, Freyberger H, Sifneos PE. Alexithymia, a view of the psychosomatic process. In: Modern Trend in Psychosomatic Medicine. Vol 3. Hill OW. London, Butterworths. 1976. pp 430-9.
- 8) McDougall J. The psychosoma and the psychoanalytic process. Internat Rew Psychoanal 1974;1:437-59.
- 9) Borens R, Grosse-Schulte E, Jaensch W, Kortemme KH. Is "alexithymia" but a social phenomenon? Psychother Psychosom 1977;28:193-8.
- 10) Cremerius J. Some reflections about the conception of "psychosomatic patients" in the French school. Psychother Psychosom 1977;28:236-42.
- 11) Ahrens S, Gyldenfeldt HV, Runde P. Alexithymie, psychosomatische krankheit and instrumentelle orientierung. Psychother Med Psychol 1979;29:173-7.
- 12) Wolff HH. The contribution of the interview situation to the restriction of phantasy life and emotional experience in psychosomatic patients. Psychother Psychosom 1977;28: 58-67.
- 13) Lipowski ZJ. Psychosomatic medicine: past and present. Part II. Current state. Can J Psychiatry 1986;31:8-13.
- 14) Taylor GJ. The alexithymia construct: conceptualization, validation and relationship with basic dimensions of personality. New Trends Exp Clin Psychiatr 1994;10:61-74.
- 15) Saarijarvi S, Salminen JK, Tamminen T, Aarela E. Alexithymia in psychiatric consultation-liaison patients. Gen Hosp Psychiatry 1993;15:330-3.
- 16) Koh KB. Comparison of alexithymia among patients with psychosomatic disorders, anxiety disorders and depressive disorders. Korean J Psychosom Med 1994;2(1): 59-68. (Korean)
- 17) De vente W, Kamphius JH, Emmelkamp PMG. Alexithymia, risk factor or consequence of work-related stress? Psychother Psychosom 2006;75:304-11.
- 18) Ham BJ, Jhun HJ. Psychological job characteristics and alexithymic traits in Korean white-collar workers. J Occup Health 2008;50:63-5.

- 19) Karasek R, Brisson C, Kawakami N, Houtman I, Bonger P, Amick B. The Job Content Questionnaire (JCQ): an instrument for intentionally comparative assessment of psychological job characteristics. *J Occup Health Psychol* 3, 322-55, 1998.
- 20) Eum KD, Li J, Jhun HJ, Park JT, Tak SW, Karasek R, Cho SI.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job content questionnaire: data from health care workers.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2007;80:497-504.
- 21) Karasek RA. Job demands, job decision latitude, and mental strain: implications for job redesign. *Adm Sci Q* 1979;24:285-308.
- 22) Karasek RA, Theorell T. *Healthy Work: Stress, Productivity, and Reconstruction of Working Life*. Basic Books. New York. 1990.
- 23) Han JH, Lee SP, Lee SJ, Do KY, Hong SC, Kim EH, Kim KS, Lew TY.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alexithymia scal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SSPS (Schalling-Sifnoes Personality Scale) and TAS(Toronto Alexithymia Scale). *Korean J Psychosom Med* 1995;3;147-58. (Korean)
- 24) Bagby RM, Parker JD, Taylor GJ. The twenty-item Toronto Alexithymia Scale-I. Item 'selection and cross-validation of the factor structure. *J Psychosom Res* 1994;38:23-32.
- 25) Kojima M, Frasura-Smith N, Lesperance F. Alexithymia following myocardial infarction: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orrelates of the Toronto Alexithymia Scale. *J Psychosom Res* 2001;52:487-95.
- 26) Salminen JK, Saarijärvi S, Aärelä E, Toikka T, Kauhanen J. Prevalence of alexithymia and its association with sociodemographic variables in the general population of Finland. *J Psychosom Res* 1999;46(1):75-82.
- 27) Bryden MP, Ley RG. Right hemisphere involvement in imagery and affect. In: *Cognitive processing in the right hemisphere*. Academic Press. New York. 1983.
- 28) Ray WJ, Morell M, Frediani AW. Sex differences and lateral specialization of hemispheric function. *Neuropsychologia* 1976;14:391-4.
- 29) Bishop GD. Gender, role and illness behavior in a military population. *Health Psychol* 1984;3:213-4.
- 30) Stansfeld SA, Fuhrer R, Shipley M, Marmot MG. Work characteristics predict psychiatric disorder: prospective results from the Whitehall II study. *Occup Environ Med* 1999;56:302-7.
- 31) Hans DW. Job insecur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exploration of some unresolved issues. *Eur J Work Organ Psychol* 1999;8(2):155-77.
- 32) Maslach C, Schaufeli WB, Leiter MP. Job burnout. *Annu Rev Psychol* 2001;52:397-422.
- 33) Guilbaud O, Corcos M, Jeammet P. Alexithymia, Stress, and Immunity. In: Plotnikoff NP, Faith RE, Murgu AJ, Good RA (eds) *Cytokines: stress and immunity*. 2nd ed. CRC press. New York. 2007. pp 101-7.
- 34) Taylor CJ, Bacby RM, Parker JDA. *Disorders of affect regulation: Alexithymia in medical and psychiatric illne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7.
- 35) Kojima M, Senda Y, Nagaya T, Tokudome S, Furukawa TA. Alexithymia,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among Japanese workers. *Psychother Psychosom* 2003;72:307-14.
- 36) Fukunishi I, Berger D, Wogan J, Kuboki T. Alexithymic traits as predictors of difficulties with adjustment in an outpatient cohort of expatriates in Tokyo. *Psychol Rep* 1999;85(1):67-77.
- 37) Kokkonen P, Karvonen JT, Veijola J, Läksy K, Jokelainen J, Järvelin MR, Joukamaa M. Prevalence and sociodemographic correlates of alexithymia in a population sample of young adults. *Compr Psychiatry* 2001;42(6):471-6.